

말았지. 그 후 며칠 동안 폴은 비르지니가 마지막으로 들고 있던 꽃다발이나, 음료를 따라 마시는 데 쓰던 코코넛 잔과 같이, 그 아이가 자기 것으로 가지고 쓰던 것들을 빠짐없이 모았다네. 그렇게 자기 여자 친구가 남기고 간 이 모든 것들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물건인 것 마냥, 그것들에 입을 맞추고 가슴에 품었지. 용연향도 사랑하는 사람이 만졌던 물건만큼 달콤한 향을 내지는 못하는 법일세. 끝내 폴은 그에게 남은 미련이 자신의 어머니와 라 투르 부인의 회한을 키우는 것을 보고, 또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는 일을 멈출 수 없음을 알고, 도맹그의 도움을 받아 정원을 수리하기 시작했네.

얼마 지나지 않아, 크레올로 태어나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무관심했던 이 청년은 비르지니와 편지를 주고 받을 수 있도록 내게 글을 읽고 쓰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부탁했지. 그다음으로는 비르지니가 배에서 내려 도착할 나라를 상상 속에서도 그려보고자 지리를 배우고 싶어 했고, 그녀가 살아갈 사회의 풍속을 알아보고자 역사를 배우고 싶어 했네. 마찬가지로 폴이 농사를 짓는 일에, 들쭉 날쭉 고르지 못한 땅을 쓰기 좋게 정비하는 기술에 능통한 사람이 된 것도 사랑의 감정에 힘입은 것이었어. 어쩌면 이렇듯 열성으로 가득 차 있어 채워지지 않는 정열이 도달하고자 하는 쾌락에, 인간은 과학과 예술 대부분을 빚지고 있을 걸세. 또한 그러한 정열의 결여로부터 철학이 탄생해,